

電氣學十人傳(6)

編 輯 室

게오르그 시몬 오옴(Georg Simon Ohm)

導體中에서의 電荷의 導電現象은 런던에서 研究하든 Stephen Gray에 의해서 1731年에 밝혀졌다. 즉 Gray는 750피이트가 넘는 다발실의 한 끝에 유리管을 달고, 여기에 摩擦電氣를 주며는, 다른 한 끝에, 근처에 있는撞球를 끌어 당기는 것을 實驗해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서 主要研究題目으로 삼은 사람은 그로부터 一世紀後에 物理와 數學을 공부하든 Ohm이 처음이었고, Oersted에 의해서 磁氣에 대한 電氣의 관계가 밝혀진 다음부터 다른 一派의 學者들이 이 힘의作用에 관한 상세한 法則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었다. 암페어로는 볼타電池에 연결된 電線의 兩端間에 潛勢의 이라는 概念으로 表現되는 “Potential electricity”가 있다 고, 더 나아가 物理學者 Fourier는 金屬막대中의 热의 흐름은 막대 兩端의 温度差에 正比例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Ohm은 Fourier의 温度傾度의 概念과 同質金屬環의 各區間을 흘리는 電流分布를 想像하므로써, 金屬導體中의 热流의 類似性을 導體中의 電流의 흐름에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 “流電氣回路에서의 電流가 흐르는 힘은 全電壓(壓力)에 正比例하고, 變形된 回路의 全長에 反比例한다” 回路의 任意 두 點에 있어서 힘의 크기가 다른 것은 이 두 點間에 電流를 흘리기 위한 “驅動力”라고 생각하여, 그는 前에 Volta가 創案한 open pile에서의 靜電의 “壓力”에 思考의 根據를 두었었다. 元來 家系가 微賤해서 그의 아버지는 열쇠만드는 사람이었으므로, Ohm自身은 Erlangen에서의 高等學校와 大學三學期修學을 위해서도 빚이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家庭教師로 번 돈을 갖고 學業을 마치고 웰른大學에 教職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流電氣回路에 관한 主要研究 즉 單極導體의 性質, 金屬의 比導電率, galvanometer의 原理등에 관한 實驗을 完成시킨 것은 이때의 일이었다. 流電氣回路에 있어서, 電流를 흘리는 原因이 되는 힘을 宏明함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깨닫고, Ohm은 웰른大學을 辞任한 후, 베를린에 있는 그의 兄宅에 머물면서, 1826年 4月부터 다음해에 걸쳐, 問題解決과 그의 著書를 위해서 没頭했었다. Ohm이 流電氣回路의 性質에 관해서 요약한 學說과 推斷은 다음과 같다.

1) 볼타電池回路에 흘리는 電氣量은 흘리는 方向에 直角인 各斷面에서 볼 때, 導體의 모양에 관계 없이 同一하다.

2) 回路의 任意의 一點에서의 變化는 그 影響이 全回路에 波及된다.

3) 電流는 起電力에 正比例하고 回路抵抗에 反比例한다. 또 다음과 같은 實事도 알게 되었다.

즉 電池回路의抵抗은 液體의抵抗과 導線의抵抗의 和이고, 여러개의 電池를 直列로 連結할 때, 萬一 外部抵抗이 매우 크며는 電流는 電池數에 比例하고, 外部抵抗이 적으며는 電流의 크기는 電池數에는 無關하다. 이리하여 Ohm은 “오옴의 法則”이라고 自己 이름을 따서 볼리우는 電氣學에 관한 基本的인 法則를 만들어 내었다. 그는 electromotive force(起電力, 直譯하면 電動力)라는 말을 導體中에서의 電流의 驅動力이라고 생각했으며, 電流와 抵抗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했었고, 그의 法則은 일단 理解된 후에는 모든 電氣回路를 다루는데 있어서 基礎가 되었다. 그는 先驅的인 思考家였으므로 靜電荷의 作用과 볼타電池의 定常電流間의 關係, 즉 靜電荷는 導體表面에만 存在하는데, 導體를 흐르는 電流는 그 表面과 全斷面도 아울러 占有한다는 두 事實을 連結하고 調和시켜야만 했었다. 그후 거의 같은 時期에 런던에서 Barlow가, 파리의 Becquerel이 同質金屬이지만 길이와 直徑이 다른 두 試片의 導電率를 각각 다른 값으로 나타냈을 때, Ohm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實驗해 보므로써 解決하기로 작정했다. 銅—亞鉛電池의 兩端을 각각 水銀owell에 連結하고, 4 인치에서 23 피이트 범위의 6個의 電線을 차례로 하나씩 써서, 두 水銀owell을 이었는데, 그 중 짧은 電線이 조금 굽고, 나머지는 모두 直徑이 0.03 인치였다.

다음 torsion balance를 電線위에 놓아 그 비틀림을 바늘로 指示케 하고, 이것으로 電流의 크기를 나타내게 했다. 굽은 電線을 偏倚測定에 있어서 나머지 電線의 基準으로 삼았을 때, torsion balance를 이용한 测定에서 얻은 關係式은 다음과 같다.

$$v = m \log\left(1 + \frac{x}{a}\right)$$

여기서 v 는 電流를 흘으게 하는 힘의 減少, x : 導線의 길이, a : 基準으로 삼았던 粗은 導線의 길이, Ohm 의 말에 의하면, “係數 m 은 標準이 되는 힘과, 導線의 粗기, a 의 크기, 그리고 내가 確信하는 바로는 電氣的 壓力, 즉 potential의 函數이다. 當時 나는 實驗을 通해서 이 函數의 性質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고 힘쓰고 있었다.” 1826年 Schweigger 評論에 실린 論文中에 그는 그의 實驗을 정리하고, 다시 풀이했었다. “同一物質의 電氣導體에서는 그 直率이 다르다 할지라도, 길이가 斷面의 크고 적은 것에 比例해 있으며는 同一導電率을 갖는다.” 이 論文은 “金屬이 電流를 통하는데 있어서의 法則의 確定과 Volta 器具 및 Schweigger 信率器의 原理要約”이라는 복잡한 題目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후에 1827年에 冊字로서 出刊되었는데, 그 文章表現이 하도 애매해서 많은 歲月을 學界에서 默殺되고 認定되지 않은 은채 묵어 있었다 그 文章表現이 하도 애매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그의 論文이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당할 때, Ohm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할 나위 없이 괴로운 일이었고, 그의 著書에 대한 酷評은 드디어는 그를 大學教授職에서 물려서기 하고, 그 후 六年間을 家庭教師나 그의 臨時職業을 통해서 生計를 이어나가야만 했었다. 그로부터 22年後 그의 功勞가 認定받아 Munich 大學의 物理學講座를 맡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의 나이 60이었다. 英國은 1841年에 그가 “이제까지 극히 不確實한 상태에 빠져 있던 重要問題를 解決하였으므로” 王立學會의 Copley medal을 그에게 授與했고, 다음 해에는 또 하나의 獨逸人 Gauss 외에는 아직 주어진 일이 없는 海

外會員이 바르게는 名譽를 얻게 되었다. 또한 메달을 授與한 王立學會의 委員會는, Ohm이 電流密度와 電流量과의 差異를 計算了, 電流의 크기는 回路의 全起電力を 全抵抗으로 나눈 商과 같다라는 事實을 證明했음도 指摘하였는데, 이것은 電流源이 热電氣이건, Volta 電池이건 相關敘이 真理이고, 萬一 그 商이 같으면, 그 電流效果도 同一하다. 이리하여 Ohm이 행한 研究業績은 먼저 外國에서 認定받은 다음 서서히 그 본고장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著書中에서 Ohm은 Pavy의 觀察을 確認하고 있는데, 그것은 溫度에 反比例해서 金屬導體의 導電率이 變化한다는 現象에 관한 것이었다. Georg Simon Ohm(그의 洗禮名은 Johann Simon Ohm이었다)의 이름과 名譽는 電氣가 흘리는 한 쓰여질 한 法則과 날 말 가운데 영원히 固着되겠지만, 그의 죽음과 우리世代 사이에 二世紀도 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出生地에 관한 정확한 記錄을 찾을 걸 없고, 뿐만 아니라 墓碑에 쓰여진 날자에 틀린 것이 허다하므로, 그의 生日조차 잘못 傳해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碑石에는 1789年 3月 16日, Bavaria 地方 Erlangen의 某處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허다한 苦生後에 바라던 物理學教授職을 Munich 大學에서 얻은 그는 電氣學에 관한 研究外에도 分子物理, 偏光의 干涉作用, 音響學 및 電報通信에 관한 研究도 하였다. 1881年 巴黎에서 모였든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가 “Ohm”을 電氣抵抗의 標準單位로 정한 것은 그의 과학적 生涯와 電氣學에 대한 偉大한 貢獻에 대한 敬意의 表示였었다.

註 1 電氣學十人傳(4) 參照

一名 Voltaic pile 이라고도 하는데

pile 은 銀, 銅, 亞鉛 等 異種의 金屬板을, 多孔性의 종이, 布 등을 사이에 끼어, 여러장 쌓아 올리고 이 종이나 배에 鹽水를 쳐셔서 高電壓電池를 만들었다. 이것이 電池의 始初이고 그 모양이 外函없는 pile(堆積)이었으므로, 오늘 電地를 가리켜 Volta의 “Open pile”이라 한다.